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국문)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제, 앎이 우리를 성장시키리라 (영문) Festivals that change the world, Knowing will grow us		
지도교수 의견	도전학기의 취지에 맞게 본 지원학생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지역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의견을 들으며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킴. 참관과 체험의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소책자 형식의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며 내용의 풍부함과 다양성, 형식의 완결성과 성실성을 완비하였다고 사료됨.		

1. 도전 과제의 목표

3가지의 다양한 축제를 참가해 그 축제를 통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경험하며,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었는지 돌아본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변화를 체험해본다. 그곳에서 얻은 체험과 지식으로 나의 시야를 넓혀나가고 행동력을 키우며, 그 경험을 다른 이들(대구대 학우들)과 공유해나간다.

2. 도전 과제 내용

각 축제에 참여하여 그들의 문화, 관심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고 듣고 온 몸과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고 느껴본다. 축제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본다.(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편견 해소,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 효과, 편견에 맞서는 용기 있는 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념을 지켜나가는 굳은 의지, 채식 문화의 흐름 등)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축제의 다양한 부스 탐방, 관심 있는 부스에 질문하고 정보 얻기, 퀴어 퍼레이드 참여(현장감을 직접 생생히 느껴봄), 반려동물 영화제에서 하는 영화 관람, 축제 중 열리는 다양한 강연에 참석하여 경청해 듣고,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 축제에 온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공유하는 경험을 나눈다.

이렇게 도전학기를 수행할 때 우선 계획된 일정으로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에 가기 전 미리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들을 알고 가고, 미리 내가 무엇을 알고 싶고 질문해 볼 수 있을지 적어보고 가는 것도 축제를 더 재밌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축제 중에는 틈틈이 메모해 기록을 남기고, 다녀와서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이들과 좀 더 넓게 공유해나갈 수 있을지 책자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초안을 작성해본다. 지도교수님의 조언으로 과제를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덜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마음을 낼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책자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책자를 대구대 학우들과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며 경험을 공유한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이 도전 과제를 하며 나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느꼈고, 그 과정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알아가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책자를 만들어보는 시도를 통해 책 만들기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었고, 창작의 고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 감사하다.

4. 자기평가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 서투른 점들이 많았다. 책자를 만들어감에 있어 목차를 구성하고 그 세부내용을 작성하는 작업이 꽤 시간이 걸렸고, 정해진 마감 기한 내에 완성을 하려니 부담이 많이 되었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도 했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본다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이 경험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해나갈 수 있으니 이또한 귀한 배움과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5. 최종 결과물

3가지 축제를 담은 소형 책자(32p) 100부

※ 참고문헌

1.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북(성소수자 부모모임 펴냄)
2.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소수자 바로알기(로템나무그늘교회)
3. 사랑할까, 먹을까(황윤)
4. 아무튼 비건(김한민)